

July, 2024

July 1, Mon, 2024

당신 자신에게 가능한 한 가장 다정하게 말하라.

봐, 자기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일출의 강변을 묘사하거나,  
클럽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어린이를 묘사하거나,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처음 마주친 순간을 묘사하는 것뿐이야.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써나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여기서 이 짧은 글 한편을 마무리하는 거야, 알겠지?  
-(쓰기의 감각) 중에서

July 1, Mon, 2024

요양원

허준이 교수의 졸업축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일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 일인실이구나. 〈쓰기의 감각〉이라는  
책에서 회복기 환자의 요양소 대목이 있다. “나는 하느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나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죽을 때 능력있고 편안히 죽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산다는 것.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것이 나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나는 열심히  
살겠지. 또 스티브잡스가 한 말도 기억난다. 시한부 인생이 되면 모든 것은 사라지  
고 자신의 관심사만 남는다고.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